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7.2.(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신공항기획과	담당자	·과장 주종완, 사무관 전 진, 주무관 조만기 ·☎ (044) 201-4138, 4139
보 도 일 시		2018년 7월 2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2.(월) 6:00 이후 보도 가능	

제주 제2공항 ‘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’ 용역 착수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(이하 “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”)에 착수한다고 밝혔다.

○ 그간,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‘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’를 수용하여 용역 발주절차를 진행한 결과, 용역업체로 (주)포스코건설 컨소시엄(타당성 재조사 분야: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)을 최종 선정(‘18.6.29 계약)하였다.

* (사업규모) 연간 2,500만 명 항공수요 처리를 위한 활주로(3,200m) 등 (총사업비) 4.87조원

** (용역기간/용역금액) ‘18.6.~’19.6. (12개월 : 타당성 재조사를 우선 3개월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등 후속 조치 실시) / 39억 원

□ ‘타당성 재조사’ 부문 용역에서는 종전 ‘제주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’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제기하는 우려 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.

* 인프라 확충 최적 대안 선정시 시행한 분석의 적정성, ‘제2공항’ 입지평가 기준 적정성, 입지평가지 활용된 자료 및 분석 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오류여부를 객관적·과학적 방법으로 평가

○ 특히, 독립성 확보를 위해 종전 ‘사전타당성’ 연구 및 자문회의에 참여한 업체 및 인력을 배제하였으며, 분담이행방식을 통해 기본 계획 분야 연구기관은 ‘타당성 재조사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.

-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동 용역의 **모니터링 기능**을 담당할 ‘**검토위원회**’ 구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.
 - 또한, 지역추천 전문가들을 포함한 동용역의 **자문회의**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
 - 연구 단계마다 **일정과 연구결과** 등을 성산읍 이장단,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등 지역사회에 **투명하게 공개**하여 **공정성**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
- ‘타당성 재조사’ 이후 **기본 계획 수립 용역**이 착수되면 예정지역 범위, 공항시설 규모 및 배치, 운영계획, 자원조달 방안, 주민 지원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.
 - 특히, 공항건설·운영과 지역주민이 **상생**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**주민지원방안**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김용석 공항항행정책관은 향후 용역 추진과정에서 **지역 주민들과 소통**하면서 지역의견이 충실히 검토·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밝혔다.

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공항 기획과 전 진 사무관(☎ 044-201-4138), 조만기 주무관(☎ 044-201-413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